

『개벽』을 통해 본 1920년대 단군 인식의 양상과 의미 연구 (1)*

박 성 혜**

차 례

- | | |
|-----------------------------|---------------------------------|
| 1. 서론 | 3. 『개벽』에 수록된 단군 담화 |
| 2. 『개벽』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단
군론 | 1) 시원의 역사이자 황금시대였던
단군 시대 알리기 |
| 1) 배달국의 단군 신화 | 2) 국토의 기행을 통한 단군 기억하기 |
| 2) 천도교적 관점의 단군론 | 4. 『개벽』에 수록된 단군 표상의 의미 |
| |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개벽』에 수록된 단군 표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벽』에서 단군 관련 텍스트 76개를 뽑고, 이를 단군신화, 단군론, 단군 담화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벽』에 수록된 단군표상은 주로 이두성, 김기진, 박달성과 같은 개

* 이 논문은 2025년 12월 19일에 개최된 한국문화회 하반기 전국학술발표대회(주제: 문학과 종교의 시대적 만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8011025).

**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전담 객원교수

벽의 집필진들이 구성해 나갔다. 단군 신화와 단군론은 검열로 인해 기사의 일부가 삭제되어 발행되거나 자체 삭제되어 의도했던 내용이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였을 때 단군을 배달국의 대황조로 표상하고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을 단군의 후예로 호명하는 것이 확인된다.

단군 담화의 경우 위와 동일한 단군 표상을 구현하면서도 두 갈래의 방식으로 단군 표상을 강화해나갔다. 먼저 단군 시대를 현재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여러 자질들이 이미 구비되었던 시원의 시대이자 황금시대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단군과 관련된 지역을 다룬 기행문을 통해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주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라는 흐름을 독자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수사학적 전략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단군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개벽』의 집필진은 이와 같은 단군 표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삼국유사』 「고기」형의 단군 신화를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대종교에서 향유되던 단군과 관련된 지식을 덧붙여 전달하였다. 특히 단군 신가의 ‘선심’을 강조하고 환인을 무극의 하늘로 간주하며 하늘과 인간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하늘이자 주재자로서의 단군과 그의 영이나 혼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단군신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심을 가지고 배달국과 같은 황금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을 내재화한 인간이 신과의 합일을 이루어 개벽을 이루는 ‘인내천 주의’를 단군으로 표현한 사례가 된다. 이렇듯 『개벽』은 문화적 기억으로서 단군 표상을 생성하고 강화해 나갔다.

주제어: 개벽, 단군, 1920년대, 천도교, 검열, 신화, 담론, 이두성, 김기진, 박달성

1. 서론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 제국 일본의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매체를 통한 담론의 생산과 확장, 전유와 재생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군 표상의 생성과 확장에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및 『개벽』과 같은 잡지의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1920년대 단군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매체를 통해 형성된 단군 표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단군에 대한 연구로 최남선의 단군 관련 논의들을 들 수 있다.¹⁾ 그리고 1920년대 문화사학자로 지칭되는 안확, 권덕규 등의 고대사 인식에 관한 논의도 축적되었다.²⁾ 최남선이나 문화사학자들의 활동이 당대에 역사서의 출간이나 신문 연재를 계기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은 1920년대 단군 인식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1년에 대중교 관련 자료들이 한 차례 정리된 이후³⁾ 별다른 자료들이 발굴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이후 대중교의 교리서나 포고문 등이 꾸준히 발굴되어 그 내용과 특징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⁴⁾ 이에

-
- 1) 대표적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걸, 『한국 현대사학사』, 나남출판, 1998;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전성곤,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2008;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육당연구학회, 『최남선 다시읽기』, 현실문화, 2009; 육당연구학회, 『최남선과 근대 지식의 기획』, 현실문화, 2015.
 - 2) 이행훈, 「안확의 ‘조선’연구와 문명의 발견」, 『한국철학논집』5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최호영, 「자산 안확의 내적 개조론과 ‘조선적 문화주의’의 기획」, 『한국민족문화』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송호정, 「1920년대 문화사학자의 민족 자각론과 한국 상고사 인식」, 『역사와 담론』106, 호서사학회, 2023 등이 있다.
 - 3) 대중교종경중사편수위원회, 『대중교중광60년사』, 대중교총본사, 1971.
 - 4) 샷사 미즈아키,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샷사 미즈아키, 「간도지역 대중교의 초기 활동과 백봉집단」,

기존 논의에서 대중교 기반의 단군 인식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1895년부터 1919년까지 단군 전승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었다.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20년대에 향유되었던 단군 인식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잡지 『개벽』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가 주목된다. 그동안 잡지 『개벽』은 1920년대 ‘미디어적 중심’이자 ‘시대의 총아’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⁶⁾ 1920년대 단군 논의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 주지하듯 1920년대 학술장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수록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에서 ‘단군’은 278회나 등장하며 빈도수 1위를 차지했다.⁷⁾ 이는 이 시기 매체가 단군 인식의 확산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가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 시기 신문에서 단군 담론을 주도한 사람은 두 신문에 자신의 논설을 연재한 최남선이다.⁸⁾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최남선의 단군론은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기 때문에, 1920년대의 단군 표상의 전승 양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도와 한인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21-223쪽; 허태근, 「홍암 나철의 단군교 중광과 조천」,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조준희·유영인 편, 역사공간, 2017; 이숙화, 「대종교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정육재, 「초기 대종교의 역사인식과 ‘한국학’ -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와 『대동고대사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77, 고려사학회, 2019 등이 있다.

5)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소년』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 -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47, 국문학회, 2023a; 「『청춘』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 - 대중교 단군 인식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98, 우리말글학회, 2023b.

6)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13쪽.

7) 홍정완, 「신문으로 읽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조선 역사·문화」, 『동방학지』 1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17쪽.

8) 위의 논문, 13쪽.

서는 최남선의 논설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최남선의 논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단군영정 현상모집> 광고나 백두산 기행 광고, 대중교 및 단군교의 행사를 소개하는 짧은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때 『개벽』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이 주목된다. 이 시기 최대 잡지사였던 개벽사가 발행한 『개벽』은 1920년 6월에 창간되어 1926년 8월에 폐간될 때까지 총 72호가 발행되었으며 대중성을 확보하고 공적 담론을 주도했던 이 시기 대표 잡지이다.⁹⁾ 잡지는 그 성격상 정보 전달 목적의 짧은 기사보다 논설이 많은데, 『개벽』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 역시 논설이 주를 이루며, 대중교에서 주로 향유되었던 단군 관련 지식이 활용된 사례도 보인다. 따라서 1920년대 단군 표상의 전승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본고의 목적에 따라 『개벽』에 수록된 텍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이 시기 학술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단군 표상을 생산 및 재생산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이 시기 학술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단군 표상을 생산 및 재생산했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은 페어클러프(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연구(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¹⁰⁾ 페어클러프의 틀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 수록된 텍스트들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단군 표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9) 김봉희, 「일제시대의 출판문화」, 『한국문화연구』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91-192쪽.

10) 페어클러프는 텍스트 분석에 집중한 언어학 중심의 미시적 분석, 푸코의 사례와 같이 사회의 제도나 역사성을 다루는 거시적 분석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구체적인 텍스트로부터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이지명,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본 도덕과 민족 담론의 양상」, 『국민윤리연구』51, 한국윤리학회, 2002, 371-400쪽; 서덕희, 「“교실붕괴”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연구』6(2), 한국교육인류학회, 2003, 55-89쪽; 신동일, 『담론의 이해: 담화, 담론적 전환, 비판적 담론 연구』, 책세상, 2022).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적절하다. 그는 담론을 텍스트(texts), 상호작용(interactions), 맥락(contexts)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담론을 분석할 때 텍스트의 기술(description), 매개하는 담론(상호텍스트성)의 해석(interpretation), 구조화된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¹¹⁾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어휘·문법·구조 등의 분석, 개별 텍스트 간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이나 장르·스타일·핵심 주제와 같은 상호 텍스트성의 분석,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사회적 과정 혹은 사회적 실천의 일부로 설명하는 이데올로기 분석으로 나눈다.¹²⁾

본고에서도 위와 같은 틀을 원용하여 단군 관련 텍스트들이 구성하는 단군 표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텍스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군 관련 기사를 일차적으로 상호 텍스트성의 해석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단군 표상의 재현 방식과 담론의 층위에 따라 단군 신화, 단군론, 단군 담화¹³⁾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군의 출현 과정과 건국의 내력을 서사로 형상화한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대한 메타 담론, 즉 단군 신화를 분석하여 이론적인 체계화를 시도한 단군론, 해당 텍스트의 주제와 상관없이 특정한 전제 아래 단군을 언급한 단군 담화로 나누었다. 단군 신화, 단군론, 단군 담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미시적인 기술 체계,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주로 2장과 3장에서 논의될 것이며 사회의 제도나 이데올로기적 맥락은

11) 노먼 페어클립, 『언어와 권력』, 김지홍 역, 경진, 2011, 68쪽.

12) 신동일, 앞의 책, 173, 236, 282쪽.

13) ‘비판적 담론 연구’라는 방법론의 서술에 따른 단어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담화와 담론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회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혹은 다소 자의적인 수준에서 경험을 의미화시킨 언어사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화’라 지칭하고 산출된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 자원으로부터 담화의 특정 유형으로 그리고 사회적 실천방식으로 작동되는 추상적인 의미로 ‘담론’을 사용한다(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4(3),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2쪽).

주로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논의를 위해 『개벽』에 수록된 기사 중 특정한 단군 표상을 전제하고 단군을 언급한 기사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군, 환웅, 한배, 대황조, 배달과 같은 지칭어를 사용한 사례들을 따로 뽑아 총 76건의 단군 관련 텍스트를 선별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단군 표상이 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개벽』의 원문은 한국사 DB의 한국근현대잡지 자료에서 검색한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한국사 DB, 국립중앙도서관, 현담문고(구 아담문고)의 이미지 파일로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다.¹⁴⁾ 한국사 DB의 경우 개벽사 영인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짐작되나 여러 버전의 영인본과 개벽압수원본, 국립중앙도서관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¹⁵⁾ 따라서 한국사 DB에서 제공하는 원문과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여 원문과 검열로 인해 삭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수일은 검열로 인한 판본 현황과 『개벽』의 압수·삭제기사의 목록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역시 참고할 수 있다.¹⁶⁾

2. 『개벽』에 수록된 단군 신화와 단군론

1) 배달국의 단군 신화

『개벽』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대종교에서 향유되던 단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벽』 창간호에 수록된 일웅(一熊)의 「단군신화(檀君神話)」¹⁷⁾를 들

14) 『개벽』의 소장처, 판본 현황 등은 최수일, 앞의 책, 소명출판, 2008, 109-112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근현대잡지자료 자료소개, 한국사DB, <https://db.history.go.kr/introduction/modern/intro_ma.html> 2025.12.12. 검색.

16) 최수일, 앞의 책, 113-119쪽.

17) 일웅, 「단군신화」, 『개벽』 1, 1920년 6월 25일, 61-63쪽.

수 있다. 일용은 『개벽』의 발행인인 이두성(李斗星, 1890-1930)이다.¹⁸⁾ 이두성은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1908년부터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활동하였으며, 30세 나이에 『개벽』의 발행인을 맡았고 천도교청년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⁹⁾

주지하듯 『개벽』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신문지법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창간호는 몇 가지 기사로 인해 압수되어 호외를 냈다가, 이마저도 압수되고 임시호까지 발행해야 했다.²⁰⁾ 「단군신화」는 문제가 된 기사 중 하나로, 말단의 2행이 삭제되었다.²¹⁾ 이 기사는 1. 단군의 제생설(濟生說)에서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 신화²²⁾를 소개하면서 “단군의 강생(降生)은 거금 4253년이였다”고 적고, 뒤이어 단군과 관련된 7개의 항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2. 천부삼인(天符三印), 3. 삼신(三神), 4. 고시레, 5. 팽오(彭吳), 6. 신지(神誌), 7. 팔리(八理), 8. 단군신가(檀君神歌)로 이루어져 있다. 2부터 8까지의 내용은 당시 대중교에서 향유되던 단군 관련 지식에 해당한다. 검열로 인해 삭제된 부분을 포함한 기사의 하단부를 살펴보자.

-
- 18) 「자식은 죽었으나 산모는 여전 건재」, 『동아일보』, 1926년 8월 3일; 『『개벽』시대를 추억하며, 당시에 집필하던 제씨의 기념집필』, 『별건곤』 30, 1930년 7월 1일, 22쪽.
- 19) 조규태, 『『개벽』을 이끈 사람들』,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94-96, 108쪽.
- 20) 최수일, 앞의 책, 33쪽. 그 이후 『동아일보』(1920.9.25.- 2021.1.10.)와 『조선일보』(102-8.7.-1920.9.2./1920.9.5.-1920.11.5.)는 발행정지를 당했다(정진석, 『한국 언론사』(3쇄), 나남, 1995, 456쪽).
- 21) 「謝告」, 『개벽』 1, 1920년 6월 25일.
- 22)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 신화는 「고조선」조에 수록된 단군 신화 중 「고기」를 인용하였다고 밝히는 부분을 한정하여 언급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 신화라고 지칭했을 때 떠오르는, 환웅과 웅녀의 결연을 통한 단군의 탄생을 서술한 것이다. 이를 「고기」형 단군 신화로 지칭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조현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196-208쪽).

팔. 단군신가(檀君神歌)

단군 때(時)에 신가(神歌)가 잇서 인민의 송축이 되었섯나니 그 원본이 좌(左)와 여(如)하다.

어아어아 나리한배금가미고이. 배달나라니리다모. 골잘너나도가오쇼. 어아어아 차마무가하라다시 거마무니설데다라. 나리골잘다모하라두리 온차마무. 구설하니마무온다. 어아어아 나리골잘다모하라하니. 무리설 데마부리아. 다미온다차마무나. 어아어아 나리골잘다모하라고비오마무. 배달날아달이하쇼. 골잘너나가머고이 나리한배금나리한배금.

우(右) 신가는 그 시대의 점에서 아주 미상(未詳)하나 고사기(古史記)를 근거로 대고구려 동명왕 때에 가곡으로써 궁중에서 여항까지 성전(盛傳)하였으며 우(又) 광개토왕은 매양 출전할 때에 군가로 사용하여 써 군기를 진흥하니라. 연(然)한대 동명왕은 신가를 해석하되 좌(左)와 같이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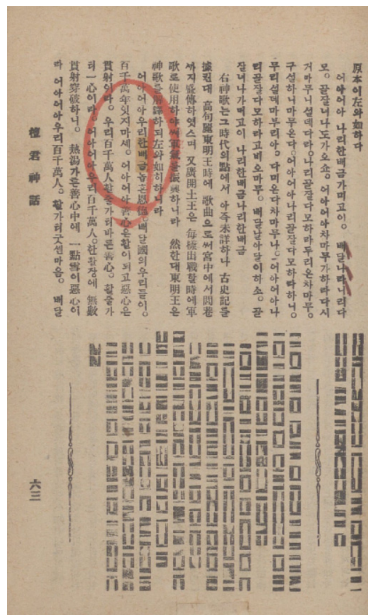
어아어아 우리 대황조(大皇祖) 놓흔 은덕. 배달국의 우리들이. 백천만년 잊지마세. 어아어아 선심(善心)은 활이 되고 악심(惡心)은 과녁(貫射)이라. 우리 백천만인 활줄가티 바른 선심. 활줄가티 일심(一心)이라. 어아어아 우리 백천만인. 한 활장에 무수한 과녁(無數貫射) 천과(穿破)하니. 열탕(熱湯)가튼 선심중에 일점설(一點雪)이 악심이리. 어아어아 우리 백천만인. 활가티 굳센 마음. 배달국의 광채로다. 백천만년 놓흔 은혜. 우리 대황조 우리 대황조 (밑줄은 검열로 인해 삭제된 부분으로 필자 추가)²³⁾

위의 내용은 단군 시대에 불렀다고 하는 신가(神歌)의 가사와 그 해석이다.²⁴⁾ 배달국의 백천만인이 활줄같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 대황조

23) 일웅, 「단군신화」, 『개벽』 1, 1920년 6월 25일, 63쪽(인용문은 가독성을 위해 한자로 기록된 부분을 한글로 적고, 한글로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울 때만 한자어를 병기하였다. 이하 인용문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4) 이 노래가 실제로 단군 시대부터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암송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행위를 일정하게

의 은덕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다. 현재 단군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1909년에 대중교의 전신인 단군교의 공포와 함께 유통되었던 <단군교포명서(檀君教佈明書)>²⁵⁾이다. 검열로 삭제되었던



<그림 1> 단군신화(한국사DB)

부분은 한국사 DB의 한국근현대잡지 자료에 입력된 원문과 『개벽압수원본선집』²⁶⁾에서 확인되며 이는 <단군교포명서>에 수록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²⁷⁾

그러나 말단의 2행에서 검열로 인해 삭제될 만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 <그림 1>²⁸⁾에는 한배금을 둘러싼 적색 붓질이 보인다. 이것은 검열관 니시무라의 검열의 흔적이다.²⁹⁾<단군교포명서>와 비교해보면 앞부분에 이미 ‘배달국’, ‘백천만년’과 같은 표현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단어는 ‘우리 대황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되는 『개벽』의 호외에는 대황조가 적혀있고,

반복함으로써 단군 표상을 떠올리기에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었다(박성혜, 앞의 논문, 2021, 202쪽).

- 25) <단군교포명서>가 알려진 시기와 다양한 판본에 관해서는 위의 논문, 62-63쪽.
- 26) 『개벽압수원본선집』25, 역락, 2002, 75쪽.
- 27) 한국사DB는 높은 은혜(恩惠)로 적혀있고, <단군교포명서>는 높은 은덕(恩德)으로 적혀있다.
- 28) 한국사 DB의 이미지 자료는 현담문고(구 아담문고)의 임시호와 동일하다. 창간호의 판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최수일, 위의 책, 33, 72-91, 109-118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9) 이종호, 「1920년대 식민지 검열 시스템의 출판물 통제 방식」,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354-358쪽.

한국사 DB에서 확인되는 『개벽』의 임시호에는 한배금과 적색 붓질이 남아있다. 두 자료 모두 말단 2행이 삭제된 것은 동일한데 단군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다. 호외가 먼저 발행되고 임시호가 나중에 나왔다고 본다면,³⁰⁾ 윗단의 대황조와 말단의 2행이 온전하게 적혀있던 것이 창간호였는데, 말단의 2행이 삭제된 상태로 윗단의 대황조를 남겨둔 채 호외가 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압수를 당하게 되자 임시호에서 윗단의 대황조를 한배금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군교포명서>에 따르면 한배금 혹은 한배검은 대조신(大祖神)의 고어로 금이나 검은 신의 존칭이다. 한배금은 대황조와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보다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단어이자 대황조의 직접적인 사용은 피할 수 있는 어휘이다. 이후 출판된 『개벽』에서 대황조는 50호(1924년 8월 1일)의 <강도답사기>에서 한 번 확인되며, 한배는 5호(1920년 11월 1일), 13호(1921년 7월 1일), 15호(1921년 9월 1일)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대황조와 한배의 사용 사례를 보았을 때, 당시 대황조라는 단어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대황조는 무엇일까. <단군교포명서>에 따르면 대황조는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의 줄임말로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신화에서 환웅, 단군의 기능이 수렴된 존재이자 국조와 신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 신격인데, 대황조단군성신의 국조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³¹⁾ 그리고 배달국은 대황조가 다스리던 삼천단부를 통칭하는 용어로 배달은 조부의 광휘를 입은 사방의 토지라는 의미의 국호이며, 조선은 배달이 와전된 것으로 간주된다.³²⁾

30) 최수일, 앞의 책, 33쪽.

31) 박성혜, 앞의 논문, 2023a, 173-174쪽.

32) 「포명본교대지서」, 1, 6쪽(김성환, 「대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에 대하여」, 『단군학연구』14, 단군학회, 2006, 197,201쪽); 박성혜, 위의 논문, 186-187쪽.

대황조, 배달과 같은 단어는 대중교인들 사이에서 향유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09년에 단군교를 알리는 기사와 함께 널리 알려진 <단군교포명서>는 『제국신문』, 『신한국보』 등에 그 전문이 수록되기도 하였으며,³³⁾ 최남선도 『소년』에서 1909년 11월부터 정간 직전까지 대황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바 있다.³⁴⁾

또한 <그림 1>에서 보듯 말단 2행과 더불어 옆의 내용도 모두 삭제되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따르면 “「막시마쓰」의 格言과 「사—자」의 臣下의 간청에 對한 答言”에 해당하는데, 해당 전문 역시 한국사 DB와 『개벽압수원본선집』³⁵⁾에서 확인된다. <단군신화>의 다음 기사인 <우사(愚思)>에 비추어보았을 때, 앞선 본문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곱씹기를 바라는 내용을 격언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부분이다. 삭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군(君)이여 군이 만일 이 도시를 잃(失)치 안이하얏스면 나(子)는 이를 탈회(奪回)하는 유쾌를 부득(不得)하였슬터이지…… 나는 군에게 감사하오.

「막시마쓰」가 「한니발」로부터 모 도시를 탈환하고 석일 이(該) 도시를 건탈한 「뷔야쓰」에게 일러준 말이 이말이라. 과연하다 세상에 진정한 유쾌가 유(有)하다 하면 이미 실(失)한 것을 기약하지 않은 어느 날(不期何日)에 탈환하는 그것일 것이다.

• 비록 구수(仇讎)의 창총(槍銃)이라 하라 오즉 일기(一氣)도 명을 운(殞)함은 상(常)히 죽음(死)를 구(恐)하며 생(生)을 영속(永續)함에서 승(勝)한 것이다.

각하시여 제발 경위(警衛)를 더 좀 엄중히 하소서 하는 신하의 간청에 대한 「시—자」의 답변이다. 구구히 생을 바라며 전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도배(徒輩)에게 죽히 어떤 일을 말하리요.

33) 박성혜, 앞의 논문, 2021, 63쪽.

34) 박성혜, 앞의 논문, 2023a, 165-166, 169쪽.

35) 『개벽압수원본선집』25, 역락, 2002, 75쪽.

삭제된 13행은 막시무스와 시저의 격언과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적은 것이다. 먼저 막시무스가 한니발에게 빼앗겼던 도시를 탈환한 후, 한니발에게 도시를 빼앗겼던 뷔야쓰, 즉 리비우스에게 하는 말이다. 네 [리비우스]가 도시를 잃어버렸으므로 내[한니발]가 도시를 되찾는 기쁨을 얻었으니 고맙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진정한 유쾌가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탈환하는 dlf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이 내용은 앞에 배치된 <단군신화>와 함께 읽었을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천부삼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단군이 내려왔던 지역의 범위로 “조선, 중국, 몽고 사이 구천리 지방(朝鮮, 支那, 蒙古間 九千里 地方)”³⁶⁾이 제시되며, 이 고토가 배달국으로 지칭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유쾌함은 <단군신화>에서 언급된 배달국을 탈환하는 것이거나 제국 일본에게 빼긴 조선의 주권을 탈환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격언은 안전을 먼저 챙기라는 신하의 만류에 대한 시저의 대답이다. 비록 원수의 창과 총이라도 한 번 죽는 것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을 이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뒤이어 평탄한 삶을 바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량배들에게 어떤 일을 말하겠냐는 서술이 이어진다. 제국 일본의 체제에 순응하여 안온하게 살아가는 구차한 삶과 여기에 저항하다 창과 총에 죽는 삶을 대비시키며 제국 일본의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종합해보자면 독자들이 <단군신화>부터 이 격언까지 읽게 되었을 때, 단군이 세웠던 최초의 나라를 기억하며, 현재 잃어버린 땅과 주권을 회복하는 기쁨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의 제목이 <단군신화>인 것에서도 일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의 첫 번째 항목인 단군의 제생설은 『삼국유사』를 소개하기 위해 “단군의 전설을 고려문헌에 나타난 바로 시작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도 제목은 단군 ‘신화’라고 적고 있다. 이

36) 일웅, 「단군신화」, 『개벽』 1, 1920년 6월 25일, 61쪽.

는 단순한 오기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3개월 전에 『매일신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단군론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이 전설이라는 견해는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고(1894)>와 같은 글을 통해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일본인 학자들에게 신화란 신성한 기원을 천명한 신대사와 관련된 기기신화(記紀神話)이기 때문에³⁷⁾ 『삼국유사』의 내용은 고구려 장수왕 대에 생긴 전설이거나 묘향산 산신의 연기설화 정도로 간주되었다. 다카하시 도오루는 이와 같은 논의를 수용하여 <단군전설에 대하여>와 같은 일본어 논문을 잡지 『동원(同源)』 1호(1920.2)에 수록하고, 이를 조선의 지식계급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문이나 한글로 번역해 『매일신보』에 1920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게재하였다.³⁸⁾ 이 논문은 단군전설을 신앙함이 옳은 것인지 따져보려는 목적에서 쓴 것으로, 나철의 단군교에서 단군을 전조선민족의 시조로 세우는 것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⁹⁾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두성이 <단군신화>라는 제목 아래 ‘단군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고기」형의 단군 신화를 적고, 단군과 관련된 인물로 고시래, 팽오, 신지를 소개하고, 인민을 교화한 팔리나 고구려 동명왕 때 불렀다고 하는 단군신가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삼국유사』라는 문헌 외에도 단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의 표현이다. 겉보기에 <단군신화>의 내용은 단순히 단군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을 대황조를 중심으로 한 배달국의 자손들로 호명하면서 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

37) 하정현, 「1920년대-30년대 한국사회의 ‘신화’개념의 형성과 전개」, 『종교문화비평』2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28-29쪽.

38) 장 신, 「3·1운동 직후 잡지 『동원』의 발간과 일선동원론」, 『역사와현실』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78-279쪽.

39) 高橋亨, 「단군전설에 대하여(4)」, 『매일신보』, 1920년 3월 10일.

취하는 글이 바로 <단군신화>이다.

2) 천도교적 관점의 단군론

『개벽』에는 단군 신화를 근거로 조선 민족의 고유성을 찾는 논설도 확인된다. 『개벽』 61호에 수록된 기전(起田)의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이 이에 해당한다.⁴⁰⁾ 이 텍스트는 61호에서 일부 삭제된 세 개의 기사 중 하나인데,⁴¹⁾ 『개벽』 61호는 개벽 발간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호로 준비되었지만, 자체 삭제된 본호일 가능성이 높다.⁴²⁾ 이에 따라 『개벽』 61호는 독자들에게 유통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광고 직후 가장 처음으로 배치된 권두 논설이라는 배치상, 또 후술할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고자 한다. 주로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과 같은 주요 집필진들이 작성한 권두 논설은 독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입장이 드러난다.⁴³⁾ 과연 『개벽』의 집필진들이 5주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기전은 『개벽』의 편집주간을 맡았던 소춘(小春) 김기전(金起瀾, 1894-?)으로, 그는 이돈화와 함께 『개벽』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⁴⁴⁾ 그는 잡지와 신문 등에 300여 편의 글을 실었으며, 『개벽』에는 85편 내외의 글을 수록했다.⁴⁵⁾ 또한 “이돈화와 함께 관서에는 소춘이 있어서 신앙이 강하고, 관북에는 야퇴(이돈화)가 있어서 궁리에 강하다”고 회고될 만큼 신앙심도 깊었다.⁴⁶⁾

40) 기전, 「朝鮮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개벽』 61, 1925년 7월 1일, 4-7쪽.

41) 최수일, 앞의 책, 115쪽.

42) 위의 책, 110쪽.

43) 허 수, 『『개벽』의 ‘표상공간’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362쪽.

44) 윤해동, 「한말 일제하 천도교 김기전의 ‘근대’수용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1996에 김기전의 생애와 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5) 이병태, 「소춘 김기전의 서구 철학·사상 수용 특징-저술의 분류와 개관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2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152쪽.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은 조선민족의 사상, 심성, 종족의 기원 등을 설명하면서 조선 민족의 강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주장을 담은 논설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첫째로 특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단군신화이다”고 말하면서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 신화를 서술한다. 뒤이어 김기전은 독특한 단군신화론을 전개한다.

(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화라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원시시대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을 상징한 것으로써, 신화의 내용의 여하(如何)를 보아써 그 민족의 선천적 성능(性能)내지 정조(情調)의 여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에 말한 신화의 우의로써 보건대, 처음에 환인이라는 무기(無機), 무극(無極)의 천(天)이 잇서, 시간, 공간, 물질의 섭리자인 환웅이라는 신을 동(動)케 하여, 풍(風), 우(雨), 상(霜), 설(雪), 등의 삼천군도(三千群徒)와 가티 세간의 이화(理化)에 힘쓰던 중, 필경 곰과 가튼 고등동물의 물성을 순화시키고, 그와 어울니여써 사람(檀君)을 탄생하였다 한 바, 더 서방신화의 대표인 「이스라엘」화(話)에 그저 전지전능의 한울이 떡가루로 떡빚듯이 사람을 지어 냈다는 말과는 스사로 다름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울이 따로 잇서 가지고 그 지능의 일부로써 이러케 저러케 지여 노은 것이 이스라엘 신화의 사람이라 하면, 한울 그대로가 상당 년월과 상당 노력을 비러서 표현된 것이 조선신화에 나타난 사람이다. 이것은 환인의 자가 환웅이오 환웅의 자가 왕검이라 하는 점을 보아서 그러하거니와, 일설에 환인은 천(天)이오 환웅은 신이오 왕검은 인(人)이라는 기록을 보아 더욱 밝다. 천내인(天乃人), 인내천(人乃天)의 우의를 가진 조선민족의 신화 - 달리 말하면 조선민족의 원시사상은 다른 민족의 그것에 비하여, 과연 특이한 점이 있다.

(나) 그리고 단군신화에 잇서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정의, 선악에 대한 관념이 가장 풍부하게 강렬하게 표현된 것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니 제세이화(在世理化)니 한는 기록은 그만두고라도, 단군교화의 팔리(八理)라는 것을 보면, 성(誠), 신(信), 애(愛), 제(濟)의 네 가지가 그 처음이 되었으며, 더욱이 단군신가(神歌)에는 정의, 선악에 대 관

46) 허 수, 『이문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93쪽.

념을 극도로 표현, 고조하였스니, 가로되

어아어아 선심은 활이 되고, 악심은 과녁(貫射)이라. 우리 백천만인 활줄 가티 바른 선심, 활줄 가티 일심이라, 어아 우리 백천만인, 한 활장에 무수한 과녁(無數貫射) 돌파하니, 열탕가튼 선심중에 일점설(一點雪)이 악심이라. 어아 우리 백천만인, 활 가티 곳센 마음...

운운한 것으로 보면, 실로 세계의 엇던 기록에서도 보지 못할, 무서운 노래이다. 하물며, 삼국시대에는 이것을 가곡으로 해서, 궁중에서 여항까지 성전(盛傳)되었다 함이리요. 사실 조선민족의 심성은 이와 가티도 선에 강하고 또 불선(不善)을 죽이는 데에 강하다.⁴⁷⁾

(가)에서 보듯 그는 민족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이 신화에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신화의 내용을 통해 민족의 선천적인 성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인을 무극(無極)의 하늘로 보고, 하늘이 시간, 공간, 물질의 섭리자인 환웅이라는 신을 움직이게 해서 세상을 이화(理化)하였으며, 곰과 같은 고등동물의 물성을 순화시킨 후 그와 어울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환인, 환웅, 왕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조-부-자 관계를 말하면서 “일설에 환인은 천이오 환웅은 신이오 왕검은 인이라는 기록을 보아 더욱 밝다.”고 말한다. 나아가 서양의 신화에서 사람은 신이 떡가루로 떡을 빚듯이 지능이 있는 신이 그 지능의 일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단군 신화에서 하늘이 오랜 노력을 통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과연 ‘특이’한 것이며, 이는 천도교의 천내인(天乃人), 인내천(人乃天)의 우의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일설에 해당하는 자료는 정훈모가 세웠던 단군교 관련 자료로 추정된다. 정훈모의 단군교는 1910년에 단군교가 대종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분립한 단군교를 말하는데, 나철의 대종교와 달리 친일적인

47) 기전, 『朝鮮民族만이 가진 優越性』, 『개벽』 61, 1925년 7월 1일, 5-6쪽.

색채를 가졌지만,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종교라는 특성상 분립 이전의 단군교와 유사한 부분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단군교에서 향유되었던 『단군교진리문답』⁴⁸⁾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다) 문 단군은 령신이신가 사람이신가

답 성령이시오 성신이시오 성인이시니 텃신인 삼위일테시라

문 성령과 성신과 성인은 무엇을 이름이뇨

답 하늘노 하강하심은 성령이시뇨 짜호로 좃츠 승턴하심은 성신 이시오 령과 신으로 인형을 보이심은 성인이시니라

(중략)

(라) 문 하늘을 텃신하야 교를 세우다흠은 무엇을 이름닌뇨

답 일은 팔 리가 잇고 이는 계명이잇느니라

문 팔리는 무엇을 이름이뇨

답 정성되고 밋부고 스랑하고 건지고 화되고 복되고 감고 응흠 이니 인도의 극진흠을 가라쳐 지도하심이니라

문 계명은 무엇을 이름인뇨

답 텃리의 감응됨을 예비하야 인스의 맛당히 헝홀 것을 밝히 보 이시니라(밑줄은 필자)⁴⁹⁾

위 내용은 단군교의 교리를 문답의 형태로 설명하는 『단군교진리문답』의 앞부분이다. 인용문의 (다)에 따르면 단군은 성령이자 성신이며 성인인 존재로, 천신인(天神人) 삼위일체이다. 천신인 삼위일체의 관념은 얼핏 대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대종교의 경우 삼위일체의 신관을 예각화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인종(人宗)’이나 ‘신인(神人)’으로 지칭한 적⁵⁰⁾은 있어도 ‘사람’이나 ‘인’으로만 지칭한 적은 없다.

48) 『단군교진리문답』(1913)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는 없지만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1913년부터 정훈모의 단군교도들을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박성혜, 앞의 논문, 2021, 117쪽).

49) 『단군교진리문답』, 2-4쪽.

50) 박성혜, 앞의 논문, 2021, 119-120쪽.

또한 그는 (나)에서 조선민족의 심성으로 단군교화의 팔리에 포함된 성(誠), 신(信), 애(愛), 제(濟)를 언급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두성의 <단군신화>에도 적혀있던 내용이다. (라)에서 보듯 정훈모의 단군교는 교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정성(誠), 믿음(信), 사랑(愛), 구제(濟), 화(禍), 복(福), 보(報), 응(應)의 팔리(八理)를 강조하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어 김기전의 논설에서도 단군교화의 팔리의 사례로 성, 신, 애, 제, 즉 정성, 믿음, 사랑, 구제가 언급된다.⁵¹⁾

단군신화에 대한 김기전의 견해는 천도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그의 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환인을 무극의 하늘로 보는 것은 일동일정(一動一靜)하는 우주 시간 속에서 일정(一靜)하는 시간인 후천 5만 년, 즉 무극대도(無極大道)⁵²⁾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하늘과 인간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서술도 주목된다. 일례로 단군을 사람으로 파악하여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하늘-신-인간의 연결로 보는 것, 환웅을 시간, 공간, 물질의 섭리자인 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사람의 탄생과 관련하여 한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인간에게 천이 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적 본성이 천과 같아질 수 있다고 보는 인내천의 맥락에서⁵³⁾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환웅의 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내천의 우의로 이어진다.

김기전의 단군 신화론은 최남선의 <단군론>(1926)보다 ‘이른 시기’에 ‘천도교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단군 신화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남선의 <단군론>과 비교했을 때 김기전의 단군 신화론은 역사학적 민속학적 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

51) 위의 논문 130쪽.

52) 이지연, 「최제우의 태극·무극 사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7-28쪽.

53) 윤해동, 앞의 논문, 224, 235쪽.

을 문헌 고증을 통해 논박하려고 한 최남선에 비해 그 방식이나 분량 등이 소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목에서 보듯 글의 목적이 단군 신화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교의 관점에서 조선 민족만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단군 신화의 일부분이 활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이 신화에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관점은 현재에도 신화 분석의 기본 전제가 된다. 또한 그가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진 일본인들의 단군부정론과 당시 대종교나 단군교에서 향유되는 단군 관련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사상적 기반인 천도교의 관점에서 단군 신화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듯 김기전은 단군신화에서 조선민족의 특성이나 우월성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천도교의 교리인 인내천의 관점에서 새로운 단군 신화론을 전개했다.

3. 『개벽』에 수록된 단군 담화

이 장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주제와 상관없이 특정한 전제 아래 단군 표상을 구성하는 단군 담화를 다룰 것이다. 『개벽』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 중 74건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시원의 역사이자 황금시대였던 단군 시대 알리기

『개벽』에 수록된 기사 중에는 단군이 다스리던 시대를 시원의 역사이자 필자가 강조하려는 자질이 이미 충만했던 황금시대⁵⁴⁾로 전제하는

54) 여기에서 황금시대는 앤서니 D. 스미스의 용어이다. 황금시대는 공동체의 기원을 주재하고 스스로 신과 함께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시대를 말하며, 한편으로는 현자, 성인, 영웅을 가진 공동체가 광휘를 발했던 시대를 말한다. 첫 번째와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돈화가 쓴 『개벽』 5호의 권두 사설인 <조선인의 민족성을 논하노라>를 들 수 있다.⁵⁵⁾ 이돈화는 이 글에서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선심(善心)’을 지목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두성의 <단군신화>나 김기전의 논설에서 단군신가의 ‘선심’을 강조한 것과 동일하다. 그는 민족마다 특수한 민족적 정신이 있다는 전제 아래, 유사 이전에 조선인이 선의 이상을 동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단군신가를 내세운다. 뒤이어 선의 진짜 의의를 오해하지 말라는 제목 아래 선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한다. 단군과 고구려의 전성시대는 선으로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⁵⁶⁾ 1. 생활상 모든 영역에서 선을 활용하고, 2. 선은 물러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정·사회·국가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3. 선은 약함이 아니고 자강(自強)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인 ‘선심’을 제대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선심주의로 세계의 비인도와 부정의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벽의 집필진들은 왜 단군신가에 언급된 선심이나 정성, 믿음, 사랑, 구제와 같은 단군교화의 팔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이는 김기전과 이돈화의 문화운동론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개벽』 창간호의 권두논설인 「세계를 알라」는 과거의 사회를 비인도적이며 부정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의 인도를 발현하여 평등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정의 인도는 인격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시대정신도

두 번째 시대는 구분될 수도 서로 합쳐질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첫 번째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앤서니 D. 스미스,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2018, 398쪽). 황금시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앤서니 D. 스미스,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222-225쪽; 위의 책, 2018, 398-418쪽).

55) 이돈화, 「朝鮮人の民族性を論하노라」, 『개벽』 5, 1920년 11월 1일, 2-10쪽.
 56) “即 檀君 高句麗의 全盛時代는 善으로써 興하였나니 以上에 述함과 가티 檀君은 善의 神歌로써 其民을 發達하였고 高句麗는 善의 軍歌로써 其民을 強盛케 하였다.”

생존경쟁에서 상호부조로 변화했다고 본다.⁵⁷⁾ 그리고 온갖 고통을 겪었던 조선민족이야말로 인류 구제를 할 수 있는 민족이며, 사랑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민족 국가의 건설은 인류 해방의 단계로 본다.⁵⁸⁾ 또한 이돈화의 사람성주의에서 보듯, 그는 도덕 개념을 넓게 상정하고 개인의 인격 도야나 도덕 개조와 같은 해법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⁵⁹⁾ 요컨대 당시 김기전이나 이돈화는 인내천의 관점에서 착한 마음, 정성, 믿음, 사랑, 구제와 같은 도덕과 교화를 중시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군신가의 ‘선심’에 주목하였다.

위의 내용이 『개벽』 집필진의 입장이라면, 이에 호응하는 다른 필자의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 권덕규의 <조선 생각을 찾을 때>⁶⁰⁾는 단군시대와 대종교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논설이다. 이 기사가 수록된 『개벽』 45호는 사상비판호 특집으로, 사상비판은 “현사회의 표면에 선 사람들의 사상경향을 명시하여 우리 사상계의 분야를 명료히 하려”⁶¹⁾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노자, 유교, 묵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무정부주의 등의 키워드 사이에 배치된 이 논설은, 식민지 조선의 사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대종교만의 특징을 소개하려는 의도 아래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생각을 찾을 때>는 총 3장 구성으로 “우리의 종교상(宗教上) 지위(地位)”, “종리(宗理)의 파무친 까닭”, “조선생각을 차출대”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문화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바며 남에게 우리됨을 받”⁶²⁾았고 대종교가 그 증거가 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설과 같은 우리의 종교가 4천 년 전에 천신인(天神人) 삼위일체설(三位一體說)을 주창한 신교(神敎)이다. 신교의 대표적인 신은

57) 윤해동, 앞의 논문, 242쪽.

58) 기전, 「쟁투의 세계로부터 부조의 세계에」, 『개벽』 32, 1923년 2월 1일, 12-24쪽; 위의 논문, 249쪽.

59) 허수, 앞의 책, 136-148쪽.

60) 권덕규, 「朝鮮 생각을 차출때」, 『개벽』 45, 1924년 3월 1일, 34-40쪽.

61) 「편집후고」, 『개벽』 45, 1924년 3월 1일, 155쪽.

신시씨(神市氏)라 불린 환웅(桓雄)이며, 신교의 흔적은 인도, 중국, 일본 등에 남아 있다. 이렇듯 “대종(大宗)의 진리가 현오(玄奧)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왕조가 자주 바뀌면서 사서가 전해지지 못했고, 모화자(慕華者)들이 신교와 갈등을 일으킬 때 신교의 무리들은 “진종(眞宗)의 이치(理)”에 따라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신교는 후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또한 대종교의 이치는 “가깝게는 심신의 안과 멀리 나 무끝 바위틈까지라도 싸안지 아니함이 없”을 만큼 크고 넓어서 불교나 유교가 쉽게 수용될 수 있었고, 불교와 유교의 흥하면서 “조선 고유의 지방적 취미와 민족적 색채”는 희미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권덕규는 “문명을 가졌던 민족 조선 사람”의 문화운동은 “옛문화를 찾아 세워서 제 빛으로 꾸밀 뿐”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조선 사람의 사상, 감정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고, 조선 사람의 토대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고, 우주와 합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즉 지선(至善)에 힘쓰는 것이 문화운동이 된다. 이에 조선을 알고 연구하기 위해 금강, 다도해, 선인의 유적이 있는 곳에 가서 늙은이, 어린이, 노동자에게 배우는 것이 5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조선 사람이 생각해 내는 문화를 찾는 길이 된다.

권덕규의 사설에 따르면 흔적조차 찾기 힘든 조선 고유의 민족적 색채를 중광(重光)한 것이 지금의 대종교이다. 이 텍스트에서 우주까지 합일하도록 ‘지선’에 힘쓰라고 강조하는 점은 앞서 살펴본 집필진의 논조와 유사하다. 신교의 흔적은 단군시대의 종교와 문화가 최고의 문명이었음을 보여주며, 이 문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다. 시원의 역사이자 시원의 종교, 당시 가장 발달되어 황금시대를 이끌어갔던 흔적이 신교에 남았고, 대종교는 이를 다시 회복하는 문화운동의 일환이 된다. 권덕규는 이후 이와 유사한 논설을 『삼천리』에도 수록하였다.⁶²⁾

62) 권덕규, 「大倣教觀, 大倣教는 歷史上으로 어떠한가, 『삼천리』 8(4), 1936년 4월 1일, 134-139쪽.

이돈화와 권덕규 외에도 다양한 필진이 단군 시대를 황금시대로 형상화한다. 박종홍은 3회에 걸쳐 <조선미술의 사적 고찰>이라는 글을 수록하면서, 조선미술의 시원을 단군 시대로 형상화한다. 그는 역사 시대의 첫머리에 <고조선기(古朝鮮紀)>를 직접 인용하고⁶³⁾ 자신의 설명을 덧붙인다.⁶⁴⁾ 이에 따르면 보석과 주옥의 산물이 풍부하던 배달국 시기에 고시례(高矢禮)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오곡의 농작을 일으켰고, 신지(神誌)는 문자를 만들고 윤리를 정해 인민을 교육하여 동방에 이룬(彝倫)⁶⁵⁾

63) 박종홍(朴鍾鴻), 「조선 미술의 사적 고찰(제3회)」, 『개벽』 24, 1922년 6월 1일, 20쪽. “古朝鮮紀에 日 降于太白山檀木下. 開拓山河, 生育人物. 至再週甲子之戊辰上月三日. 御靈宮誕訓神誌時, 彭吳率三千團部衆, 類首受之. 高矢採青石於東海濱. 神誌畫其石以傳之”

64) 高矢禮는 荒蕪를 開拓하여 5穀의 農作을 興케하였으므로 後人의 相傳하는 바-요. 寶石과 珠玉의 産이 豊富하던 倍達國의 일이라. 東海濱에서 玉石을 採得하였다함도 無怪한 事-며 神誌는 文字를 制하고 彝倫을 定하여 人民을 教育하였으므로 東方에 彝倫이 始明하였다 云하니 文字가 既有한 當時라. 筆墨으로 畫함은 後世에 至하여 發明한 者인즉 如何한 書畫이었든지는 可測키 難하나 刀錐로써 角石에 彫畫함으로 書畫가 始行된 者-라 하는 以上 何如컨 그 玉石의 面에 刻畫하여 傳後하였다함도 無疑한 事實인 듯 하도다. 卽 此로서 우리 美術史上 彫刻 繪畫의 嚆矢로 認定하나 幾乎誤想이 아닐 줄로 斟酌하노라. 然이나 此는 다만 記錄에 의할 뿐이오 實地로 對象物에 接치 못하니 歎惜을 不已하는 바-로다. 그러타고 檀君時代의 故蹟이 全無함은 아니니 設祭天壇. 第三郎城. 後徙都唐莊京. 此祭大하든 壇은 江華島 距邑 南 4里許의 東으로는 北漢山을 遙望할지며 西으로는 星羅碁布한 諸島를 一眸之下에 收置할 雄豪의 佳景이 言筆同絶之處인 摩尼山 上에 在한 塹城壇(一名, 瞻星壇)이 是也며 遣三子而築城 故로 名을 三郎이라 稱하는 三郎城도 亦是 距邑南 約里 3許의 傳燈山에 在하니 幾劫의 暴風慘雨를 閱盡하였스리오마는 尙且 完然한 遺跡을 存留함이야 實로 三國時代의 雄豪한 氣韻을 表現한 造壇, 築城의 優越한 建築術이 當時로부터 始初되었음을 推想함에 足하도다. 또한 此가 우리 倍達族의 氣像과 抱負를 示現한 者가 아니고 무엇이리오.

65) 이때 이룬은 기자가 주(周) 무왕(武王)에게 알려준 홍범구주가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기자에게 사용되던 용어가 단군에게 전유된 것을 볼 수 있다. (《서경》 <홍범> 제3장 “기자(箕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옛날 곤이 홍수를 막아 오행을 어지럽게 진열하자 상제가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내려 주지 않으니 이룬이 무너지게 되었다. 곤이 귀양 가 죽고, 우 임금

이 시작되었다. 당시에 문자가 있었는데, 이 문자는 돌에 새겨 조각을 한 것으로 조각 회화의 효시이다. 그리고 강화도의 참성단과 삼랑성을 배달족의 기상과 포부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차상찬(車相贊)⁶⁶⁾은 형평운동의 맥락에서 백정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전설로 단군의 태자가 우의 도산만국회에 참석하러 가면서 자신의 임무 중 소를 도살하는 역할을 신하에게 맡겼으며, 그 신하의 자손이 백정이 되었다고 적기도 한다.⁶⁷⁾ 그리고 보성전문학교장이었던 윤익선은 조선의 여자해방을 주창하는 글에서 남존여비는 ‘대신인단군’의 ‘천리인도의 무위화적 성훈(天理人道の 無爲化的 聖訓)’을 거스르는 것으로 기술한다.⁶⁸⁾ “평등의 권리와 동등의 자유”가 담긴 단군의 가르침은 ‘자연의 대법칙’이다. 이러한 서술에서 ‘대주재=대진리=자연의 대법칙=대신인단군의 천리인도의 무위화적 성훈=평등의 권리 및 동등의 자유’를 같이 놓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종교, 미술의 시원이자 자강, 평등, 자유가 있었던 황금시대가 단군 시대로 형상화된다.

이 뒤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 임금에게 홍범구주를 내려 주니, 이륜이 퍼지게 되었다.[箕子乃言曰 我聞 在昔鯀 堙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斁]”,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66) 차상찬은 개벽사의 편집국장, 발행인, 주간 등을 역임하였다. 박길수, 『차상찬 평전-한국 잡지의 선구자』, 모시는 사람들, 2012 참고.
- 67) 車賤者 (차상찬), 「白丁社會의 暗澹한 生活狀을 舉論하여 衡平戰線의 統一을 促함」, 『개벽』 49, 1924년 7월 1일, 39-45쪽.
- 68) 「제 명사의 조선여자해방관」, 『개벽』 4, 1920년 9월 25일, 31-32쪽. “여자구속은 인조적 악습일뿐, 전보성전문학교장 윤익선 (중략) 然함에 不拘하고 我 朝鮮에 在하야는 太古史는 未詳하야 論하기 難하나 中古 以來로 現今까지 大主宰 大眞理가 주신 天惠 卽 平等의 權利와 同等의 自由, 更言하면 自然의 大法則을 無視하고 女子는 自由도 업고 權利도 업시 男子의 使令下에서 男子의 從僕과 如한 狀態로써 數 千年을 生活하야 來함은 果然 自然의 大法則에 違反하야 人道의 正義를 無視한 者 - 로다. 嗚呼라 我 東方太初의 大神人檀君의 聖德下에서 天理人道の 無爲化的 聖訓을 受하야 繼繼承承하야 今日에 至한 吾人等族이 어 엇지 聖訓을 버리고 自然法則에 違하고 人道의 正義에 背한 男尊女卑主義를 採用하얏는가.”

2) 국토의 기행을 통한 단군 기억하기

『개벽』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담론은 국토의 기행 과정에서 단군을 떠올리는 것이다. 주로 단군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평양, 묘향산, 강화도 등을 다녀온 기행문에서 단군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으며, 그때마다 단군 시대의 찬란했던 역사가 제시된다.

단군을 언급하는 첫 번째 기행문은 압록강의 중류에 있는 강계(江界)로 가는 여정과 강계에서의 경험을 적은 글이다.⁶⁹⁾ 필자는 강계를 가는 과정에서 기차와 자동차를 탄 경험을 활동사진에 빗대어 소개하고, 이어서 개짚령 위에서 묘향산을 건너다보았던 감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묘향산이 “단군탄생의 성지라 하여 역사의 고증은 물론 없으나 전래하는 설화”에 따라 든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적는다.

지금으로부터 사천년의 고석에 환웅이라 하는 신인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천국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우연히 인간에 하강한대가 곳 그의 묘향산이었다. 생각컨대 단군신조(檀君神祖)께서 저 묘향산에 강림하실 때에 신안(神眼)과 신적(神跡)으로 천하를 돌아보고 흥흥한 민중을 교화하기 위하여 수습조의 신조신약(神詔神約)을 창조하고 조운모우(朝雲暮雨)의 변화로써 오천리의 지역을 주유하얏스렸다. 아-사천년의 고석, 물환성이(物換星移)의 간에 무상한 인생은 대를 바꾸고 수를 변하얏겠지마는 이 강산은 아즉도 사천년 고석의 웅자(雄姿)를 그대로 보전하얏다. 이 강을 봄이 단군을 봄이며 이 산을 대함인 단군을 대함이었다. 단군께서도 이 청천강의 맑은 물소리를 들엇을 것이오 이 개짚령의 웅장한 용태를 접하얏스렸다. 이제 단군의 신령은 이천만 민족의 정신이 되어 사해팔방에 그의 영채(靈彩)가 매치워 잇지마는 사천년의 고석에 그의 정령은 묘향산을 근거로 하고 영천(靈泉)이 솟아나서 그가 화(化)하

69) 일기자, 「자연의 왕국 강계를 보고」, 『개벽』 16(임시호), 1921년 10월 18일, 77-82쪽(필자의 지인들은 강계에서 천도교회의 소관으로 중일학교(中一學校)를 시작했고 이에 필자도 청년회 주최로 열리는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강계에 갔다고 적혀있다). 본고는 후술하게 될 기행문의 구조를 근거로 이 기행문의 필자를 박달성으로 추정한다.

야 구름이 되며 비가 되며 날이 되며 달이 되며 산천초목의 정채(精彩)가 되며 인류성범(人類聖凡)의 혼령이 되어 장차 천고만고역만고의 대를 이어 이 강산이 천지에 영원무궁히 그의 정령이 방박(磅礴)해야 다함이 업시 흘러가리라. 슬흐다. 신성한 배달국의 예터인 저 묘향산의 웅자(雄姿), 해암업시 위루(威淚)가 흐름을 금치 못하겠다. (밑줄은 필자)⁷⁰⁾

필자는 묘향산이 환웅, 곧 단군신조가 천부삼인을 가지고 흥흥한 민중을 교화하기 위해 천국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강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본 강과 산을 단군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단군의 신령이 이천만 민족의 정신이 되었고, 단군의 정령이 묘향산으로부터 강산 곳곳에 넓게 퍼져있어 다함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그는 묘향산을 바라보며 역사적 기원이자 신령으로서 단군을 기억하고, 묘향산을 통해 단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구체화한다. 단군과 필자가 연결되었다는 감각은 단군의 신령, 단군의 정령, 영채 등의 단어를 통해 ‘이천만 민족의 정신’을 거쳐 ‘인류 성범의 혼령’으로 확장된다. ‘신성한 배달국의 예터’이자 ‘대자연의 신비’를 담은 묘향산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에, 필자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고 격동하는 감정을 한참 추스른다. 이처럼 기행문은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주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기행문의 흐름은 가자봉인이 쓴 <‘청추(淸秋)의 여(旅)>⁷¹⁾와 춘파(春坡)가 쓴 <‘일천리 국경으로 다시 묘향산까지>⁷²⁾에서도 확인된다. 가자봉인과 춘파는 모두 박달성(朴達成, 1895-1934)의 필명이다.⁷³⁾ <청추의 여>는 “강화! 아-강화!! 단군신조(檀君神祖)-삼자를 명

70) 일기자, 「자연의 왕국 강계를 보고」, 『개벽』 16(임시호), 1921년 10월 18일, 78-79쪽.

71) 茄子峯人, 「淸秋의 旅」, 『개벽』 17, 1921년 11월 1일, 100-106쪽.

72) 春坡, 「一千里 國境으로 다시 妙香山까지」, 『개벽』 38, 1923년 8월 1일, 54-64쪽.

하사 제천하시던 참성단이 잇는 강화! 신자삼인(神子三人)이 몸소 축성하시던 삼랑산성이 잇는 강화! 산중명산 마니산이 잇고 사중대사 전등사(傳燈寺)가 잇는 강화!”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단군과 관련된 참성단, 삼랑산성을 언급하며 외치는 감탄사는 단군을 떠올렸을 때 벅차오르는 기상을 드러낸다. 박달성은 일행과 함께 전등사와 참성단에 간다.

아-제천단! 우리 배달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배달형제를 나호신 우리의 배달국의 신조단군께서 삼자를 명하사 제천하시던 제천단!! 우리 형제-차(此)에 지(至)하매 한아버지를 뵈옵는 듯하면 한아버지 품에 든 듯하도다. 한아버지께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는 듯하며 우리의 머리를 쓸어주는 듯하도다. 우리는 실로 황송함을 금치 못하겠스며 감루(感淚)를 억제치 못하겠도다. 우리를 잘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씨를 뿌리기 위하여 몸소 단을 싸하시고 몸소 한우님께 기도하시던 제천단! 한아버지의 어음(語音)이 들리는 듯하며 한아버지의 족적이 임한 듯하도다. 4000년의 동양예술의 대표적 제천단! 동서인(東西人)이 흠탄(欽嘆)하는 제천단도 웅위건고(雄偉堅固)로 10000년에 불패할 제천단! 아-실로 조선혼이 다-몽친 듯하도다.

아-슬프다. 후손이 무능하여 이 보단(寶壇)을 선보(善保)치 못하였도다. 기천년(幾千年)의 풍우에 다소의 훼손이 되었던 차 무지물식한 일병(日兵)이 최후의 파괴를 행하였다 한다. 지금은 비문도 문루(門樓)도 업시 다만 석대 2층 뿐이로다. 아-상심처로다. 이 보단이 만약 영미에나 일본에 잇서 보라. 그들이 얼마나 힘있게 보존하였겠는가. 우리가 불행하니까 보단조차 불행하였도다. 단군 한아버지의 엄책(嚴責)이 나리는 듯하도다. 우리 일행은 다 각기 아모 말업시 침묵 속에서 후생의 무능을 자책하면서 장래를 위하여 의분을 내었섯다. 우리 일행은 근 두 시간이나 천단에 올라 일비일탄, 천고회(千古懷)를 말하며 사위(四圍)의 풍경을 완상하다가 오후 3시경에야 하산하여 덕포리(德浦里) 이응면(李應冕)씨택에서 점심하고 잉(仍)히 회로(回路)에 등(登)하였다.⁷⁴⁾

73) 최수일, 앞의 책, 738-741쪽.

74) 茄子峯人, 『淸秋의 旅』, 『개벽』 17, 1921년 11월 1일, 105-106쪽.

이에 따르면 참성단은 배달국의 신조단군이 세 아들에게 명해 제천을 위해 지은 단이다. 박달성은 제천단에 오르니 할아버지를 뵈고 그 품에 있는 듯하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할아버지의 족적이 입한 것 같고 조선혼이 다 몽친 것 같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 유적이 영국, 미국, 일본에 있었다면 제대로 보존되었을 것인데, 후손들의 무능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한다. 이 역시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주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로 이어진다. 이때 슬픔은 앞서 살펴본 <자연의 왕국 강계를 보고>보다 더 클 수 있다. <청추의 여>의 첫 문장은 단군 시대의 위엄을 느끼는 듯 감탄사를 연발하며 위풍당당한 감정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즉 첫 문장의 감격으로 인해 제천단에서 내뿜은 한탄은 감정의 낙차가 크게 되며, 이에 따라 단군 시대의 위엄과 식민지 조선의 현재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 그러나 이 글은 후손의 무능에 자포자기하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군 할아버지의 엄한 질책에 장래를 위하여 의분을 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단군의 유적을 돌아보는 기행은 단순히 단군을 기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적을 마주한 필자의 감정을 마치 연설문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때문에 이 텍스트를 낭독하거나 묵독하는 독자들 역시 필자의 감정에 더 쉽게 공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의 구도는 박달성의 다른 기행문에도 이어진다.

단군대를 향하여 일보휴(一步休) 일보행 하게 되니 실로 곤란이 막심하였다. (중략) 엷더지며 삽빠지며 찢니며 채이며하야 간신히 간신히 무작정하고 올라가다 보니 단군대 길은 종시 엷지 못하였다. (중략) 천은 억하심사로 무죄의 우리 단군유손(檀君遺孫)을 차지(此地)에 고사(苦死)케 하랴. 단군은 영(靈)하시고 신이였나니 엷지 후험(後驗)이 업스시랴. 반듯이 우리의 손을 잇그러 주시리라 하야 일단의 용력을 발하야 생사판결의 최후결심으로 수건을 결(結)하고 단장을 연(連)하야 수요상교(手腰相交)한 뒤 달암취모양으로 절벽 수장(數丈)을 기여 오르니 초(稍)히 생로(生路)가 전개된 듯 장탄과 병(并)히 미소가 나왔다. 「선행자

야 길이 아직 업느냐. 사람 살너라」 하고 목이 찌저지게 고향을 치니 바로 두상(頭上) 수보지(數步地)에서 「어이 길이 있다. 압흐로 수보만 더-나서라」 한다. 「아-사렸다. 이제야 사렸다」하고 두어 거름 옴기니 과연 미로가 낮타났다. 이러케 하여 단군대에 오르니 오후 6시이다. 단군대에 단군굴(檀君窟)이 잇스니 상하 2굴이다. 또한 단군암(檀君庵)이 잇섯더니 독립당의 휴식처라 하여 피(彼)-일본순사들이 난도를 식켜노았다. 연주(椽柱)가 상교(相交)하고 와석(瓦石)이 상침(相枕)한 처창(悽愴)한 난색(亂色)은 석양산객의 심사를 여지업시 불쾌케 한다. 하굴(下窟) 단군정(檀君井)에서 단군께서 마시시든 옥천(玉泉)을 한 박아지 퍼먹고 창연(愴然)히 저립(佇立)하여 고왕금래를 상상래(想像來)하니 「산은 여전하고 굴은 여전한데 인간은 어찌 여전하지 않을고」의 일탄(一歎)이 발하다가 「오(誤)라 인간이 만약 여전이든들 인간의 불행이 이에 심할 것- 없으리라」 하여 자위(自慰)하면서 상하 2굴에 배회하면서 단군의 당시를 추상(追想)하고 오등(吾等)의 현시(現時)를 생각하다가 일색(日色)이 창창래(蒼蒼來)함을 공(忪)하야 곳 하산하니⁷⁵⁾

그는 신의주에서 묘향산을 갔다가 다시 의주로 돌아오는 한 달여의 여정을 기행문으로 남겼다. 분량상의 이유로 다녀온 곳의 경험을 모두 글로 남기지 못하면서도 단군대와 단군굴의 기행은 글로 남겼다. 인용문에서는 길도 모른 채 단군대에 올라가던 막막한 여정과 마침내 단군대에 올라 느끼게 된 감상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길을 헤멜 때 “단군은 영(靈)하시고 신(神)이었나니 엿지 후험(後驗)이 업스시랴. 반듯이 우리의 손을 잇그려 주시리라”라고 생각하며 결국 단군대에 도착하였다거나 단군정에서 단군이 마시던 물을 먹었다는 서술은 자신과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단군이 신령한 신이므로 반드시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그 이후 결국 단군대를 찾게 되었다는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단군대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이고, 곧 식민지 현실과 극적

75) 春坡, 「妙香山으로부터 다시 國境千里에」, 『개벽』 39, 1923년 9월 1일, 65-66쪽.

대비가 이루어진다. 독립당의 휴식처라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이 단군굴을 난도질해 놓은 것을 보니 불쾌해지고, ‘단군의 당시’와 ‘오등의 현시’가 대비되며 산과 굴은 여전한데 인간은 여전하지 못함에 한탄한다. 그러나 인간이 여전했다면 현재의 불행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로로 나아가는데, 이는 천도교적 관점에서 어려움이 지극한 현재 상태는 후천개벽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박달성은 여러 필명으로 『개벽』에 단군과 관련된 기행문을 남겼다. 그가 기행한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독자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군과 관련된 신화나 설화를 기반으로 단군의 위엄과 대비되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위로를 전하거나 극복의 동력으로서의 의분을 강조하며 독자를 단군의 자손으로 호명하고 있다.

4. 『개벽』에 수록된 단군 표상의 의미

지금까지 『개벽』에 수록된 76건의 단군 관련 텍스트를 통해 구성된 단군 표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군 신화, 단군론, 단군 담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텍스트들이 구현하는 단군 표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벽』의 단군 표상은 김기진, 이돈화, 박달성과 같은 『개벽』의 집필진들이 구체화하였으며, 이들의 논의를 통해 단군은 ‘황금시대였던 배달국의 시조’로 형상화되었고, 이는 동시에 『개벽』을 읽는 독자들을 배달국의 후예로 호명하는 작업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일견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10년까지 전승되던 단군 표상을 수용하면서도 1920년 전반기의 시대적 맥락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선

택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국조이자 신인 단군이 세운 배달국이 문명이 발달하고 무력이 강대했던 황금시대였다는 관념, 그 후손이 식민지 조선에 사는 ‘민족’이라는 관념은 1910년대까지 단군 담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었고, 그 근거로 단군 신화와 관련 유적이 대두된 바 있다.⁷⁶⁾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군 신화와 단군론은 직접적인 검열이나 검열로 인한 자체 삭제로 인해 텍스트의 일부 혹은 전체가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삭제된 부분은 『개벽』의 집필진들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자 검열 당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내용이다. 시라토리는 <단군론>이라는 논설을 굳이 한글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까지 단군을 ‘전조선민족의 시조’로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검열관들은 『개벽』이 신문지법에 따라 발행되었을 때 문제를 야기할 만한 부분이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남겼다.⁷⁷⁾ ‘대황조’, ‘한배금’, ‘배달나라’와 같은 단어에 표시된 빨간 선, 내용 전체가 삭제된 서양의 격언 등은 창간호에 담긴 『개벽』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배달국의 대황조인 단군을 강조하고, 배달국 대황조의 후예로 독자들을 호명하며, 배달국을 회복하기 위해 독자들이 분연히 일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나 단군교에서 활용된 단군 관련 지식들이 적극적으로 인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군신가의 ‘선심’이다. 이는 『개벽』의 단군 표상이 지니는 독특한 점이다. 『개벽』의 집필진들은 단군 신화를 끌어올 때 『삼국유사』 「고기」형의 단군 신화를 끌어와서 배달국의 역사가 사천 년이 넘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활용한다. 당시에 이미 신 단군을 강조하는 대중교나 단군교에서 향유되던 단군 신화나 조선시대 지배층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던 「웅제시」 유형, 즉 신인으로서의 단군

76) 박성혜, 앞의 논문, 2021, 93-169쪽.

77) 이중호, 앞의 책, 358쪽.

을 강조하는 또 다른 단군 신화가 있었지만, 이 신화들은 배제된다. 대신 단군신가의 선심을 언급하기 위해서 대종교도들 사이에서 향유되던 단군 관련 지식이 선택되고, 지속적으로 인용된다. 이는 이두성의 <단군신화>와 김기진의 단군론, 단군 담화에서 확인된다.

김기진은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에서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 신화를 신화적 우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신화에서 민족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전제한 후, 환인을 하늘, 환웅을 신, 왕검을 사람으로 본다. 또한 하늘이 시간, 공간, 물질의 섭리자인 신 환웅을 움직이게 해서 세상을 이화시켰고, 곰의 물성마저 교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삼국유사』 「고기」형의 단군 신화에서 환인의 역할은 환웅을 내려보내는 것에 그쳤다면, 김기진은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교화하고 곰을 사람으로 변하게 해서 단군을 낳게 되는 모든 과정이 환인, 즉 하늘의 의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는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천도교의 천내인(天乃人), 인내천(人乃天)의 우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검열로 인해 독자들에게 오롯이 전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된 선심은 원래부터 ‘조선민족’에게 내재하던 자질로 형상화되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돈화의 논설에서 선심은 자아·가정·사회·국가를 위해 최선으로 활동하는 자강이자 세계의 비인도와 부정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핵심자질로 대두된다. 이는 『개벽』이 개인의 발전과 개조를 강조하는 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민족과 개인의 가치적 절충을 통해 문화주의를 ‘민족주의’에 포섭시켰던 것⁷⁸⁾이 단군 표상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선심은 개인들의 최선을 다한 활동이자 자강의 영역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로 이어지면 민족의 자강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황금시대로 복귀할 수 있고, 배달국을 재현할 수 있다.

78) 최수일, 앞의 책, 447, 452쪽.

『개벽』의 독자들이 선심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선심이 배달국의 후손에게 내재된 자질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하늘과 인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김기진의 단군론에서 보듯, 하늘이자 주재자로서의 단군, 그의 영이나 혼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선심을 가지고 배달국과 같은 황금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을 내재화한 인간이 결국 신과의 합일을 이루어 개벽을 이루는, ‘인내천주의’를 단군으로 표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 아래 『개벽』에 수록된 단군 담화는 황금시대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선심으로 구체화되는 자강의 상태, 조선만의 빛이 있던 상태, 남자와 여자의 차이나 신분 차이가 없었던 시기가 단군 시대이다. 이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필요없이 잊혀져 버렸던 단군 시대의 가치를 회복하면 된다. 문화주의의 인격 개조의 방향은 반봉건의 기치 아래 봉건적 가족제도, 혼인제도, 조상숭배 등을 폐습으로 비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⁷⁹⁾ 이는 매우 독특하다. 황금시대였던 배달국의 문화는 반봉건의 대상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이상으로 상징되는데, 이는 문명의 발달의 목적지가 서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꽃 피었으나 제대로 전승시키지 못했던 자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행문을 통해 위와 같은 단군 표상을 강화하는 담화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었다. 주지하듯 철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기차와 자동차는 근대를 상징하는 물질이었다. 최남선이 『소년』에 수록했던 <평양행>(1909)이나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수록한 <오도답과여행>(1917)은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 수단에 대한 경험과 각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토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⁸⁰⁾ <자연

79)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개조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사학』11,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9, 135쪽.

80)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국토 기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16, 2001, 한국문학연구학회, 108-118쪽.

의 왕국 강계를 보고>나 박달성이 쓴 <청추의 여>, <일천리 국경으로 다시 묘향산까지>, <묘향산으로부터 다시 국경천리에>도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기행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서술된다는 점에서 1910년대의 기행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의 왕국 강계를 보고>, <청추의 여>에서 묘사하는 광경이 활동사진 즉 영화에 빗대어 표현되는 것은⁸¹⁾ 근대의 감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행의 과정에서 단군을 언급할 때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주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로 이어지는 것은 단군 표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박달성의 전략이다.

기행문에서 묘향산은 삼신일체의 단군이 내려온 곳이자 배달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형상화된다. 묘향산이나 강화도가 단군 숭배와 관련된다는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연원이 깊다.⁸²⁾ 따라서 해당 지역의 기행문에서 단군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는 없었다. 묘향산에서 전승되던 단군 설화의 흔적이 『삼국유사』 「고기」형 단군 신화에 태백산이 곧 묘향산이라는 주석으로 남았지만, 19세기 말에 백두산을 거점으로 했던 단군 신앙 집단을 모태로 한 대중교에서는 단군이 내려온 산은 백두산으로 확정하고 있었고, 일본인 학자들이나 친일적인 색채를 지닌 단군교는 단군이 내려온 산을 묘향산으로 비정하고 있었다.⁸³⁾ 박달성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묘향산을 갔을 때 단군을 기억하고 이를 기행문으로 남겼다. 아마도 묘향산의 단군 전승이 그 지역에서 여전히 강고했고, 무엇보다 박달성에게 태백산의 위치 비정 논쟁보다 묘향산에서 단군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81) 김중철, 「근대 여행과 활동사진」,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491-500쪽.

82)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99-127, 186-219쪽.

83) 박성혜, 앞의 논문, 2021, 127쪽.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구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로 이어지는 서술의 흐름은 묘향산이나 강화도가 단군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인문지리적 차원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 부분을 읽는 『개벽』의 독자들은 다른 지역을 기행하는 감각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청년 혹은 식자층으로서 자신들이 익히 감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 좌절, 한계 등을 함께 떠올리며 기행문에 형상화된 슬픔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슬픔의 토로 이후에 연이어 서술된 장래에 대한 의분(<청추의 여>)이나 후천개벽의 직전이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관점(<묘향산으로부터 다시 국경천리에>)은 독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각자를 개조하는 데 힘써서 결국 각자가 인류를 위한 성실한 공복이 되도록⁸⁴⁾ 추동하는 열쇠가 된다. 또한 현실과의 대비를 강화시켰던 단군의 위대함은 단군과 자신이 연결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자 동시에 자각과 개조를 통한 후천개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배달국의 황금시대를 다시 구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단군과 단군 시대의 위대함, 과거와 현재의 대비로 인해 촉발되는 슬픔, 이와 같은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감탄사 등은 『개벽』 내부의 말을 ‘형제’의 언어로 조직하려는 활동의 일환⁸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적 장치는 마치 강연처럼 필자의 파토스를 전달하여 청년들을 계몽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1920년대는 강연의 시대였으며 기행문의 집필자인 박달성 역시 천도교 청년회의 주최로 곳곳에서 강연을 하였다.

84) 박달성, 「社會問題에 先하여 自我問題에 反하라 그리하여 社會에 대한 公僕이 되라」, 『개벽』12, 1921년 6월 15일, 22쪽.

85) 박숙자, 「3·1 운동 이후의 말, 『개벽』과 독자」, 『국어국문학』202, 국어국문학회, 2023, 106-111쪽.

박달성의 기행문에서 단군 표상과 관련하여 “단군 한아버지”⁸⁶⁾, “천은 억하심사로 무죄의 우리 단군유손을 차지에 고사케 하랴. 단군은 영하시고 신이었나니 엇지 후험이 업스시랴. 반듯이 우리의 손을 잇그려 주시리라.”⁸⁷⁾와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이는 단군을 조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신성함을 구체화한 언급에 해당하는데, 앞서 단군 신화와 단군론에서 확인한 대황조, 즉 조상으로서의 단군 표상과는 약간 다르다. 박달성은 기행문에 드러난 수사적 특징과 같은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위대한 조상의 ‘신성한 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행문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박달성이 쓴 <일천리 국경으로 다시 묘향산까지>는 『개벽』의 문화조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답사의 결과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1923년 8월에 발행된 평북 특집호였다. <자연의 왕국 강계를 보고>에서 시작된 국토의 기행을 통한 단군 기억하기는 <청추의 여>에 이어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⁸⁸⁾를 위한 답사의 결과물로 이어진 것이다. 『개벽』지에서 기획한 각 지역의 답사가 1920-30년대에 발표된 국토기행문의 중요한 계기가 되며, 이 시기의 국토 기행문은 단군 중심의 단일 신화의 서사와 근대인의 자기 발견의 글쓰기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⁸⁹⁾ 단군을 상기시키는 기행문은 이후에 이어지는 기행문의 효시가 된다. 이렇듯 『개벽』에 수록된 단군 담화는 1910년대까지 전승되었던 단군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

86) 茄子峯人, 「清秋의 旅」, 『개벽』 17, 1921년 11월 1일, 105-106쪽.

87) 春坡, 「妙香山으로부터 다시 國境千里에」, 『개벽』 39, 1923년 9월 1일, 65-66쪽.

88) 「조선의 발전과 조선인의 발전」, 『개벽』 30, 1922년 12월 1일, 2-3쪽. 1923년 2월부터 전국 답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반영한 특집호가 1923년 4월부터 발행되었다. 또한 문화와 관련하여 조선자랑호(61호)와 오백년조선대관호(70호)도 발간되었다.

89)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근대 국토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131, 146쪽.

하는 한편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사학적 전략을 사용하여 기행의 형식으로 국토에 남겨진 단군 표상을 구성하고 강화시켰다.

그렇다면 『개벽』에서 단군신가의 ‘선심’을 강조하고, 천도교적 단군론을 구축하고, 황금시대였던 배달국의 조상으로서 단군 표상과 함께 단군의 후예로서 조선 민족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벽』의 집필진들이 끌어왔던 단군 관련 지식이 대중교나 단군교, 즉 단군 신앙 집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단군 신앙 집단에서 구축한 논리가 식민지 시기에 꾸준히 수용될 만했다는 것이다. 단군 신앙 집단의 대두가 20세기 전후에 있었던 민족의 위기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이 위기가 『개벽』이 발행되었던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3장의 권덕규의 논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교가 구축한 논리는 단군의 다스림과 가르침, 곧 신교의 가르침을 회복하면 황금시대였던 배달국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군교포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대중교의 고유한 논리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을 재발견되고 재구성된 과거, 특별히 황금시대에서 찾는 작업은 위기 속에서 낭만적으로 민족을 구성하는 방법이다.⁹⁰⁾ 이는 <불함문화론>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에 최남선이 수행했던 조선학 연구⁹¹⁾에서도 확인된다. 『개벽』의 논조가 37호 이후로 달라졌다고 하지만, 『개벽』의 집필진은 단군 표상을 통해 끝까지 ‘민족계몽’, ‘민족의식적 각성’⁹²⁾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단군 표상은 1920년대 최남선의 단군론에 내재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90) 앤서니 D. 스미스, 앞의 책, 2018, 373-375쪽.

91) 류시현, 「민속학을 적용한 최남선의 ‘조선학’연구」, 『역사민속학』 48, 역사민속학회, 2015, 77-82쪽.

92) 최수일, 앞의 책, 395쪽.

5. 결론

이 논문은 1920년대 단군 표상의 전승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 아래 『개벽』에 수록된 76건의 단군 관련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 시기 학술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단군 표상을 생산 및 재생산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개벽』의 단군 관련 텍스트는 필명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필진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였으나, 주로 이두성, 김기진, 박달성과 같은 개벽의 집필진들이 구성해 나갔으며, 권덕규나 다른 필자들의 글도 집필진들의 의도에 맞을 때 수록될 수 있었다.

단군 신화, 단군론의 경우 검열에 의해 기사의 일부가 삭제되어 발행되거나 자체 삭제로 인해 그 내용이 결국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여 집필진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창간호에 수록된 이두성의 <단군신화>와 연이어 이어지는 격언은 배달국의 단군을 대항조로 둔 후예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탈환하고자 외치는 격앙된 목소리였다. 이는 3·1운동 이후 조선의 청년들을 계몽하고 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던 『개벽』의 발간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개벽』의 집필진들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서 환인, 즉 하늘의 역할을 확대하고 하늘이 오랫동안 노력하여 만든 것이 사람이라고 보아 하늘과 인간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인내천의 관념이 매우 오래된 것이자 민족의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에 해당하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은 단군 담화에도 그대로 이어져 배달국의 대항조인 단군과 그 후예인 단군자손이라는 표상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배달국의 시대는 현재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여러 자질들이 이미 구비되었던 시원의 시대이자 황금시대로, 남녀 차별이나 신분 차별이 없고 문명의 발달로 평등과 자유를 구가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표상은 『개벽』의 외부 필진에 의해 수용되고 확산되는 양상

을 보인다. 이와 함께 박달성이 작성한 기행문은 단군과 관련된 지역을 기행하고 ‘공간을 통한 단군 회상 - 단군과 연결되었다는 인식의 구조 - 식민지 현실과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토로’라는 흐름을 독자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수사학적 전략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단군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강의 맥락에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황금시대였던 배달국의 시조’인 단군 표상은 단군 신화, 단군론, 단군 담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벽』의 독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독자들은 이를 통해 배달국의 후예로 호명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지닌 청년 사회 및 단체의 구성원들은 단군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강화해 나갔다.

본고의 논의는 『개벽』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힌 첫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열로 인해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고 검열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집필진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기왕에 논의되지 않았던 천도교의 단군 신화론을 처음으로 발굴하여 소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목적상 단군 관련 텍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 기사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대표적인 텍스트만 선별하여 논의를 진행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개벽』에 수록된 텍스트를 멀리서 읽었을 때 보이는 양상은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개벽』
『단군교진리문답』
『동아일보』
『매일신보』
『별건곤』
『삼천리』

2. 단행본

『개벽압수원본선집』25, 역락, 2002.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고병철 외, 『간도와 한인종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노먼 페어클립, 『언어와 권력』, 김지홍 역, 경진, 2011.
대종교종경중사편수위원회, 『대종교중광60년사』, 대종교총본사, 1971.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박길수, 『차상찬 평전-한국 잡지의 선구자』, 모시는 사람들, 2012.
신동일, 『담론의 이해: 담화, 담론적 전환, 비판적 담론 연구』, 책세상, 2022.
앤서니 D. 스미스,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앤서니 D. 스미스,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2018.
육당연구학회, 『최남선 다시읽기』, 현실문화, 2009.
육당연구학회, 『최남선과 근대 지식의 기획』, 현실문화, 2015.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2007.
- 전성곤,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2008.
- 조동걸, 『한국 현대사학사』, 나남출판, 1998.
- 조준희·유영인 편,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 최수일, 『『개벽』연구』, 소명출판, 2008.
- 허 수, 『이돈화연구』, 역사비평사, 2011.

3. 논문

- 구인모, 「국토순례와 민족의 자기구성-근대 국토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2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128-152쪽.
-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국토 기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95-129쪽.
-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개조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사학』11,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9, 119-145쪽.
- 김봉희, 「일제시대의 출판문화」, 『한국문화연구』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3-232쪽.
- 김성환, 「대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에 대하여」, 『단군학연구』14, 단군학회, 2006, 155-210쪽.
- 류시현, 「민속학을 적용한 최남선의 ‘조선학’연구」, 『역사민속학』48, 역사민속학회, 2015, 63-87쪽.
-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성혜, 「『소년』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 『국문학연구』47, 국문

- 학회, 2023a, 161-196쪽.
- 박성혜, 『『청춘』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 『우리말글』98, 우리말글, 2023b, 285-313쪽.
- 박숙자, 「3·1 운동 이후의 말, 『개벽』과 독자」, 『국어국문학』202, 국어국문학회, 2023, 85-116쪽.
- 샷사 미츠아키,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서덕희, 「“교실붕괴”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연구』6(2), 한국교육인류학회, 2003, 55-89쪽.
- 송호정, 「1920년대 문화사학자의 민족 자각론과 한국 상고사 인식」, 『역사와 담론』106, 호서사학회, 2023, 243-283쪽.
-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질적탐구』4(3),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1-42쪽.
- 윤해동, 「한말 일제하 천도교 김기전의 ‘근대’수용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1, 역사문제연구소, 1996, 209-262쪽.
- 이병태, 「소춘 김기전의 서구 철학·사상 수용 특징-저술의 분류와 개관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2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143-189쪽.
- 이숙화, 「대종교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지명, 「담론이론의 시각에서 본 도덕과 민족 담론의 양상」, 『국민윤리연구』51, 한국윤리학회, 2002, 371-400쪽.
- 이지연, 「최제우의 태극·무극 사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행훈, 「안학의 ‘조선’연구와 문명의 발견」, 『한국철학논집』52,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213-241쪽.
- 장 신, 「3·1운동 직후 잡지 『동원』의 발간과 일선동원론」, 『역사와현실』

-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269-301쪽.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박달성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22, 동학학회, 2011, 7-44쪽.
- 정육재, 「초기 대중교의 역사인식과 ‘한국학’ - 『단군교오대중지포명서』와 『대동고대사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77, 고려사학회, 2019, 271-298쪽.
- 최호영, 「자산 안학의 내적 개조론과 ‘조선적 문화주의’의 기획」, 『한국민족문화』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13-143쪽.
- 하정현, 「1920년대-30년대 한국사회의 ‘신화’개념의 형성과 전개」, 『종교문화비평』2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24-57쪽.
- 허수, 「『개벽』의 ‘표상공간’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대동문화연구』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353-390쪽.
- 허태근, 「홍암 나철의 단군교 중광과 조천」,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홍정완, 「신문으로 읽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조선 역사·문화」, 『동방학지』1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2, 1-37쪽.

한국고전종합 DB db.itkc.or.kr

한국사 DB 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Meanings of Dangun
Perception in the 1920s through *Gaebyeok* (1)

Park, Seong-Hy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presentations of Dangun recorded in the magazine *Gaebyeok*. To this end, 76 Dangun-related texts were selected from the magazine and analyzed by categorizing them into Dangun mythology, theory, and discourse.

The representation of Dangun in *Gaebyeok* was primarily constructed by its editorial staff, including Lee Du-seong, Kim Ki-jin, and Park Dal-seong. Due to censorship, portions of the articles on Dangun mythology and theory were either deleted prior to publication or voluntarily removed by the writers; consequently, the originally intended content could not be fully conveyed to the readers. However, restoring these deleted sections reveals that Dangun was represented as the “Great Progenitor” (*Daehwangjo*) of the Baedal nation, and the people of colonial Joseon were invoked as the descendants of Dangun.

In Dangun discourse, while maintaining these representations, the imagery was further reinforced through two main approaches. First, the era of Dangun was portrayed as a “Golden Age”—a primordial era embodying various qualities required by contemporary colonial Joseon. Second, travelogues documenting journeys to Dangun-related sites utilized a rhetorical strategy designed to evoke readers' emotions,

* The University of Seoul.

following a narrative flow of: “recollection of Dangun through space – forging a sense of connection to Dangun – expressing sorrow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 Baedal nation and colonial reality.” This guided readers not only to remember Dangun but also to cultivate the strength to overcome their circumstances with hope.

To materialize such representations, the Dangun myth recorded in *Samgungnyusa* was utilized, supplemented by knowledge from Daejonggyo. In particular, the texts emphasized the “*Seonsim*” (Good Heart) of the Dangun tradition and regarded Hwanin as the “*Mugeuk*” (the Ultimate), highlighting the connection between Heaven and humanity. This represents an instance where “*Innaicheon*” (the doctrine that Man is Heaven) was expressed through Dangun: by internalizing divine attributes, humans—possessing the “*Seonsim*” found in Dangun’s spirit and the land—could ultimately achieve union with the divine and realize *Gaebyeok* to restore a Golden Age like the *Baedal* nation. In this way, *Gaebyeok* generated and reinforced the representation of Dangun as a form of cultural memory.

Key Words: *Gaebyeok*, Dangun, 1920s, Cheondogyo, Censorship, Myth, Discourse, Lee Du-seong, Kim Ki-jin, Park Dal-seong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1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1일